



큰인물 [경제종합] 최태원 SK회장의 독심있는 ESG실천 탄소감축 조직 신설 3



Life

[라이프] 폭폭 찌는 폭염 '슬기로운 집콕템' 인기몰이 1



“신입간호사 절반, 고된 업무에 사직서… 꿈 지켜주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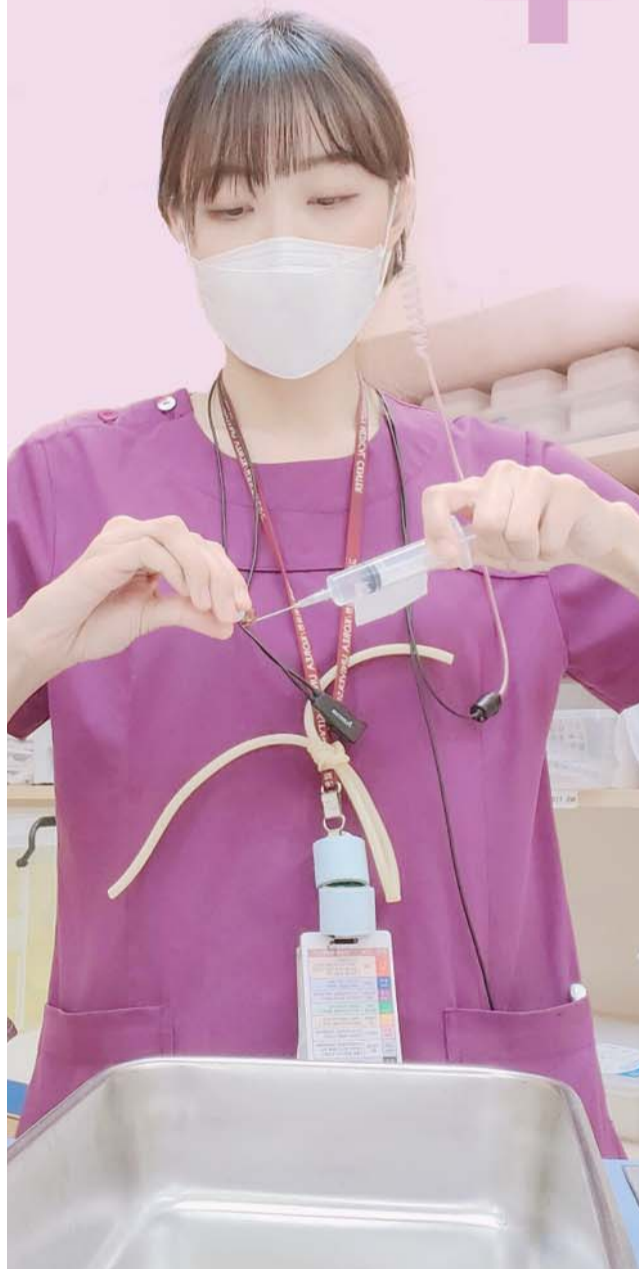


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연수
프리셉터 간호사

“간호사를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김연수 프리셉터(preceptor) 간호사(28)의 포부다.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 혹은 신입 간호사를 도와주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라며 “나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게 나의 생활신조”라고 했다.



병원에서 3교대 근무 중인 김연수 간호사

면허취득자 40% 이상 1년내 퇴직
짧은 교육기간, 업무 숙지 역부족
“살인적인 업무량… 유연근무 필요”

◆4년차 간호사, 3교대 근무

김연수 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4년차 간호사다. 프리셉터 간호사란 신규 간호사를 1대1로 맡아서 교육하는 선임 간호사를 의미한다.

그는 현재 일반외과환자와 암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통합병동에서 근무하며 후배 간호사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김연수 간호사는 “2개월 전부터 프리셉터 간호사가 되어 신규 간호사를 맡아 교육하고 있다”며 “현재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3시,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11시, 오후 10시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감사 표시를 받고 위로가 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는 그의 눈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는 어릴 적 자존감이 낮고 예민한 학생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고교시절 좋은 스승과 친구들과 만나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변모했다고 전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기가 궁금했다. 그는 “고교 시절 요양병원에 입원한 신 할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아픈 사람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간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힘들고 소외 받는 이들을 편들어 주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김 간호사에 따르면 간호대학에 입학해 4년간의 교육을 받고 1000시간의 실습을 받은 뒤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부족한 인력…위계질서 존재

힘든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었지만 1년만에 그만 두는 사람이 전체 면허 취득자의 40%에 달한다는 게 김연수 간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 한 번에 200~300명 가량의 간호 인력을 뽑지만 그 중 절반이 업무량에 지쳐 그만둔다”며 “가정인 있는 분들은 3교대 근무 체제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타 병원으로 이직 하더라도 대우가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이직한 병원의 신입 간호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 때 의료계는 간호사들의 자살사건으로 이슈가 된 적이 많았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연수 간호사(28).

/손진영기자 son@

실제로 매해 많은 간호사들이 높은 업무강도와 선후배 간 강압적인 위계질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김 간호사는 “남들은 모르는 엄격한 조직문화가 있다”라며 “신입이든 경력이든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직장 동료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에 따르면 신규간호사가 받는 짧은 교육기간이 가장 큰 문제다. 미국의 경우 최소 1년 동안 교육과정을 거치지만 국내는 40일에 불과하다. 신규 간호사가 업무를 숙지하고 정규간호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간호사 위해 사회 변화 목소리 낼 것”

간호사의 업무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과연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껴졌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1인당 5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지만 국내는 간호사가 1인당 13~14명의 환자를 담당한다”라며 “매번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간호사의 손길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김 간호사 역시 신입 시절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고 했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돌보며 투약, 체혈, 수술 검사 등의 업무를 혼자 담당해야 했다.

그는 “간호사의 업무강도와 환자의 사망률이 비례한다는 통계도 있다”며 “간호사가 원하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했다.

간호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을 강조하는 김 간호사의 꿈이 궁금했다.

그는 “앞으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돕는 정책가가 되어 활동하고 싶다”라며 “간호사 문제에 관심이 없어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사회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간호사 1인당 13~14명 환자 담당
매번 수면부족 시달리며 구슬땀
처우개선 정책가 활동하고파”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태권도 이대훈, 16강서 충격패…금메달 또 좌절
▲ 탁구 이상수-전지희 조, 세계 1위에 막혀 8강 탈락 /사진 뉴시스

▲ 文,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격려…“국민에 큰 기쁨”
▲ 집중타에 무너진 류현진, 6점 지원에 도 시즌 10승 실패



▲ 프로배구 삼성화재 날벼락, 18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 이경훈, PGA 투어 2승 도전…3M오픈 3R 공동 12위 /사진 뉴시스